

2006년 젖소개량사업 추진방향



유우개량부장
윤현상

1. 낙농산업에 대한 생각

작년에도 낙농산업의 최대 관심거리는 원유수급과 집유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낙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8,000농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6,000농가가 남아 한국낙농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는 관계자가 많은 실정이다. 즉, 낙농가 3명중 1명은 머지 않아 낙농을 떠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젖소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젖소의 평균 산차가 2.5산으로 경제수명이 낮은 목장을 운영하는 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젖소의 경제수명과 생애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낙농가들도 예전의 유량위주의 개량에서 벗어나 체형과 생산수명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선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회에서도 단순한 305일 산유량 위주의 개량방향에서 벗어나 경제수명을 연장하고, 생애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2002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검정보고회와 유우군 검정농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2005년 젓소개량사업을 뒤돌아보며

2005년은 젓소개량 중점추진사업을 선형심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명의 직원을 미국 홀스타인협회에 파견하여 선형심사연수를 시키는 등 경제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체형을 평가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의 개량매니아들이 성장하면서 젓소개량과 홀스타인품평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6월 2일 서울유우 홀스타인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단위 품평회가 개최되었는데, 8월 30일 철원군 젓소 경진대회, 9월 9일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 10월 5일 평택시 홀스타인챔프대회, 10월 29일 정읍시 가족품평회가 개최되어 낙농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0월 12~13일 개최된 제14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12개 부문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우수한 출품우와 기자재전시업체가 참여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개최하였으나, 협소한 출품축 계류장과 착유시설의 미비 그리고, 실내품평회장이 없는 현실에 대하여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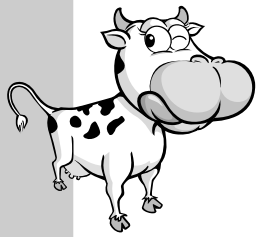
그렇지만 한국낙농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랜드챔피언을 차지한 새벽 제주도 87호(출품자 : 경기 파주시 새벽목장 박승대)의 아버소가 순수 국내에서 생산하여 후대검정을 필한 한국형 보증종모우 제주도로 알려지면서 한국유전자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전자의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틀마련과 후대검정사업을 포함한 개량사업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2005년도 젓소등록, 선형심사, 유우군 검정사업은 낙농가와 사육두수 감소와 더불어 분회 전문인력의 감소로 계획했던 사업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그렇지만 선형심사 실시두수는 역대 처음으로 3만두를 돌파하여 개량농가들이 계획교배



와 외모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3. 2006년도 젖소개량사업 추진방향

가. 사업물량

등록	심사	검정	품평회	교육
78,000두	40,030두	390,000건	216두 출품	3,000명

나. 사업방향

1) 등록사업

우리나라 젖소 사육두수와 사육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등록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량의 필수조건이 정확한 혈통확립을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조기등록과 전자등록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등록번호 체계를 국제적(ICAR)으로 통용되는 ID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유전 능력평가 자료 확보와 국제간 유전자 교류, 축산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혈통등록 단계를 단순한 기초, 본, 혈통, 고등이라는 단계에서 벗어나 개량단계별 혈액농도를 표기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2) 심사사업

경제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젖소 선형형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태·선발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혈통과 외모, 능력을 감안한 계획교배용 종모우선정표를 제공함으로써 후대축 개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선형심사 기준도 정비하여 평가부분에서 누락된 뒤에서 본 뒷다리, 유방균형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국제적 평가기준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심사전문가를 양성하여 전체 검정농가로 심사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수요가 표출되고 있는 심사자교육(Judging School)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젖소를 평가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생각이다.

더불어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상형 젖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뛰어 넘어 한국풍토에 맞는 이상형 젖소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3) 유우군 검정사업

1996년부터 발족한 지역검정회가 현재 전국적으로 62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충주검정회는 창립 10주년 검정평가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적으로 개량사업을 선도하는 산과 역할을 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지역검정회 내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Supervisor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한층 더 정확한 개량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더불어 태어나는 후 대축에 대하여 전두수 조기등록은 물론 개체식별 이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검정위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검정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인터넷시대와 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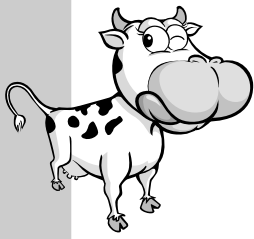
4)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제14회째를 개최한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우리나라 젖소의 개량정도를 평가하고 낙농인의 축제로써 자리 매김을 하고있다.

2006년부터는 모든 낙농가, 관련업체, 소비자가 함께 하는 낙농박람회 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 또한, 행사장소도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내체육관이나 엑스포 실내행사장을 임대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품도에 맞는 젖소육성과 개량방향을 확립하기 위하여 외국심사위원 초빙보다는 국내 심사전문가를 활용할 계





획이다.

침체되고 있는 코리아나 세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일 참가축은 품평회 출품축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별도의 우수한 고능력우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일날짜도 품평회 개최일로 정하여 행사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5) 교육사업

본회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은 검정보고회, 하반기 권역별 낙농순회세미나, 등록·검정위원 보수교육, 지역단위 소규모 교육 등이 있다.

① 검정보고회

2006년부터는 단순한 검정보고회에서 벗어나 각 개체, 우군, 지역단위의 유전능력을 평가하는 젖소능력평가대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즉, 표현형능력, 유전능력, 경제수명, 산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행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젖소개량과 유우군 검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검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② 하반기 권역별낙농순회세미나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주관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하며 실시해 온 하반기 세미나를 통하여 우수목장 동영상 발표와 사양관리 기술 및 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낙농가의 경영을 합리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국제적인 정보의 전달과 낙농가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로봇 착유시스템을 설치한 목장을 대상으로 설치과정과 운영현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③ 등록·검정위원 보수교육

개량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등록·검정위원들에게 기존 업무에 대한 보수교육과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량사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전국의 모든 등록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정보를 교류하고, 독특한 개량사업 추진방법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지역 및 검정회 단위 교육실시

지역적으로 개량사업에 소외된 지역의 개량사업 참여 희망농가들과 축산관계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량교육, 선형심사 교육, 검정성적 활용방안 등에 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7년 이래 검정회가 발족한 이후 집계된 검정성적을 활용하여 지역검정회 단위로 검정평가회 및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방향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우리의 방향

상당수의 낙농가족들은 현재의 낙농산업은 변환기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집유문제, 기준 원유량 문제, 환경문제, 질병문제 등을 바라보며 불안감과 위축감으로 낙농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자꾸만 과거의 좋았던 시기, 즉 땅 짚고 헤엄치던 시절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을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낙농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낙농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자부심을 가지고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농산업도 헬퍼제도, 로봇 착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엽매이는 낙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업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목장주에서 벗어나 경영주로서 구체적이고, 수익성 높은 전문경영을 해야 한다. 즉,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수명이 긴 젖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젖소개량과 합리적인 사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